

# 소수대다수

엠마골드만

엠마골드만  
소수대다수  
1910 년

이 글은 엠마 골드만이 1910 년 『아나키즘과 그 외에 세이들 Anarchism and Other Essays』 이라는 제목으로 펴낸 책에 실린 에세이다.

한국어 번역은 『저주받은 아나키즘』 (김시완역, 우물이 있는 집, 2001) 이라는 다소 엉뚱한 제목으로 출판되었으나 현재는 절판되었다.

엠마 골드만의 에세이들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하나의 문건으로 취급하게 되어 여기서는 〈소수 대 다수〉 만을 옮긴다.



우리시대의특징을한단어로말하라면나는‘양 quantity’이라하겠다. 대중의힘이도처에서위력을떨치고질적인것을파괴한다. 우리의모든삶이생산, 정치, 교육이양과수에달려있다. 한때철저한장인정신과자기일의질적인품격을자랑스럽게여기던노동자들이이제는머리도쓰지않고유능하지도않은자동부품같은노동자들로대체되었다. 이런노동자들이엄청난양의물건들을쏟아낸다. 삶에평안과안락을더해주지못하는이런양적인것들은인간의부담만가중시킬뿐이다.

정치에서도양이판친다. 양적증가에비례하여원칙과이상과정의와신의같은것들은완전히수적질서속에파묻힌다. 우위를점하려는투쟁을하면서여러정당들은서로속임수와기만과교활함과뒤통수치는숨씨를발휘하여다수를차지하려한다. 다수가되어야만승자가된다. 성공만이유일한신이다. 얼마나비용이들고어떤끔찍한희생을치르느냐는중요하지않다. 이런슬픈사실을굳이확인해주기위해애쓸필요는없을것이다.

과거정부가이토록뻘뻘스럽게드러내놓고부패하고철저하게썩은적이없었다. 국민의권리와자유를진정으로보호하는수호자로서의정부의배반행위는과거몇년동안의비난을훨씬뛰어넘는것이었다.

정치모리배들이다수를차지하고부패한정치현실이확고하게우위를점해버린지금정치집단의범죄는극에달해소경도그것을볼지경인데수없이이용당하고배신당한다수는정치판의승자에게대항하지않고오�히려그편을들고있다.

소수는당황하였다. 어떻게그렇게많은사람들이미국적자유의전통을배반했는지묻지않을수없었다. 판단이어디에있으며, 합리적인능력은도대체어디로갔는가? 합리적인능력을상실한이유는다수가합리적으로추론할수없기때문이다. 다수는옳은판단능력이없다. 독창성과도덕적용기를완전히상실한다수는항상자신의운명을타자의손에맡기고있다. 스스로책임질능력이없기때문에다수는파멸로가는줄도모르고지도자를추종한다. 스톡만 (Stockman) 박사의다음과같은주장은타당하다.

“우리가운데있는진리와정의에대한가장위험한적들은뿔뿔뿔뿔친다수, 저주받은저뿔뿔뿔친다수이다.”

야망도, 지도력도없는대중은아무것도중요하지않는다. 이들은개혁을외치는새로운진리의선구자를반대하고비난하고괴롭힌다.

정신을짓누르고, 인간의몸을구속한다. 다수는항상삶을획일화하고젯빛으로만들고사막과같이단조롭게만든다. 대중은항상개인을말살하고자유롭게표출되는독창성의발휘를막는다. 따라서나는다음과같은에머슨의주장을믿는다.

“대중의요구와영향력은조잡하고서투르고유해하다. 대중에게는칭찬대신교육이필요하다. 나는대중의그어떤점에도동의하지않는다. 대중을훈련시키고, 분열시키고, 쪼개어각각의개인들로만들어야한다. 대중! 대중이재앙이다. 나는어떤대중도전혀원하지않으며오직정직한남자와사랑스럽고세련된여성만을원한다.”

달리말해사회적·경제적복지가살아있고활기를띠게하려면오직비타협적이고지적인소수의열정과용기와결심이있어야한다. 대중을통해이것이현실화되지않는다.

중자들은노예제폐지가이미현실이되었고모든사람이그렇게인식했을때그저대세를따랐을뿐이다.

약 50 년전별같은이념하나가이세상의사회적지평위로떠올랐다. 이이념은너무나멀리까지너무나혁명적으로모든사람들을매료시키면서전세계독재자들의간담을서늘하게했다. 한편이이념은수많은사람들에게희망과기쁨과즐거움의상징이었다. 선구자들은자신들이가야할길이얼마나험난하지알고있었다. 하지만자부심을갖고두려움없이전진하기시작했다. 이제이이념은인기있는슬로건이되었다. 그것은오늘날거의모든사람의이념적지표가된사회주의다. 가난한피해자는물론부자도, 범죄자뿐만아니라법을집행하고유지하는자들도, 종교적허위를자행하던자는물론자유로운사상가들도, 평범한아가씨는물론천단유행을걷는아가씨들도사회주의자가되었다. 하지만사회주의자가되지말아야할이유는없는가? 이 50 년전의진리는이제거짓이되었다. 이사회주의이념은젊은이들의상상력을마비시키고, 젊은이의열정과힘과혁명적이상을앗아갔다. 왜사회주의를거부하면안되는가? 사회주의는더이상아름다운이상아니다. 다수의의지에힘입어현실적으로작동하는체제가사회주의다. 왜거부할이유가없는가? 사회주의역시다른정치와마찬가지로교활하고용의주도하게매일같이대중을어리석게만들고응석반이로만들고그들을속인다. 사회주의는무수히찬양되었다. 가난한다수가, 억압을받고상처입은자들대다수가사회주의를찬양했다.

사회주의를찬양하는장황한발언을과거에들어보지못한자가있는가? 모든정치가들이한결같이이윤조리는사회주의를모르는자가누구인가? 대중들이피를흘리고, 도둑을맞고착취를당하고있다는사실을나도알고표를얻기위해미끼를던지는자도안다. 하지만이런가공할상황에서하게된것은그책임이한중도안되는기생충같은작자들에게있다기보다대중자체에있다. 대중은그주인들에게매달려, 채찍을감수하며자신들을위해진리를말하는자를“십자가에매달라!”고가장먼저외쳤다. 그순간성스러운자본주의적권위와부패한제도에저항하는목소리를높이는사람도있기는했을것이다.

그러나대부분의대중들은기꺼이군인이되고, 정치가가되고, 감옥의간수가되고, 교수형집행자가되었다. 이들이없었다면자본주의의권위와사유재산은과연얼마나오래지속되었을것인가! 사회주의선동가들은결코쉽게자본주의의권위와사유재산을없애지못한다는사실을나못지않게잘알고있다. 그러나저들은다수의미덕을주장한다. 왜? 사회주의자들의목적은권력을행사하는것이기때문이다. 수적우위없이어떻게권력을장악할수있겠는가? 그렇다. 권력과권위와강제력은대중의힘에존한다. 하지만절대거기에는자유, 개인의자유로운발전, 자유로운사회의탄생은없다.

내가억압받자, 기득권이없는자를동정하지않기때문에, 또그들이당하는수치와공포와분노를모르기때문에다수를영원한창조적세력이라고인정하지않고비난하는것은아니다. 절대그건아니다. 하지만대중은절대정의나평등을대변하지못한다는사실을나는아주잘안다. 다수는인간의목소리를억압하고, 인간의

사회주의자들을포함해정치가들이자주언급하는우리시대의슬로건은우리시대가개인주의시대, 곧소수의시대라는것이다. 물밑에서무슨일이일어나는지모르는단순한사람이라면이견해에박수를보낼지모른다. 이세계의부는소수에게축적되어있다. 하지만이소수의성공은개인주의때문이야 아니다. 대중의무기력함과비겁함과철저한순종때문에가능한성공이다. 대중은오로지 지배당하고지도받고강제되기를바란다. 개인주의를말할것같은면면인류역사상그어느때에도정상적이고건전한방법으로온전히표출되지못했고자기위상을차지하지못했다. 그럴기회가별로없었다.

정직한목적의식으로충만한개별적교육가와근본적인이상을지닌예술가나작가또는독자적인과학자나탐험가, 비타협적인선구자들은매일같이낮은지식과창의성을가진인간들에게밀려난다.

페러 (Francisco Ferrer i Guàrdia) 와같은교육가들은어디에서도용납되지않는다. 그러나잘조리되어소화가잘되는음식을제공하는것, 곧기존의사회체제를그대로수용하는교육, 곧기계부품같은인간양성교육및엘리트교육은아무런저약도없이성공적으로이시대의주요교육으로자리잡고있다. 문학이나드라마의세계에서는험프리워즈 (Humphrey Wards) 와클라이드피치스 (Clyde Fitches) 같은대중예영합하는인물들이대중의우상이지만에머슨 (Ralph Waldo Emerson) 과소로 (Henry David Thoreau), 휘트먼 (Walt Whitman) 같은인물들의천재성과미적가치를아는사람은거의없다. 입센 (Henrik Johan Ibsen) 과하우프트만 (Hauptmann), 버틀러예이트 (Butler Yeats), 스테판필립스 (Stephen Phillips) 같은인물의경우도마찬가지다. 이들은모두대중의지평을넘어선고독한스타들이다.

출판인들과극장주인과비평가들은창조적인예술에내재된질적품격을요구하지않는다. 얼마나많이팔릴것인가, 대중의기호에맞는지만을고려한다. 슬프게도대중의기호란덤핑시장과같다. 정신적인소화작용이전혀필요없는그런맛이다. 결과적으로진부하고평범하고뻔한내용이대표적인문학작품으로행세한다.

예술에서도이와똑같은상황에우리가직면해있다는사실은굳이말할필요도없을것이다. 공원과도로변을살펴보라. 저속하고혐오스러운예술작품들이깔려있다. 다수의취향이이런예술적유린을참지만은않을것이라고생각할수도있다. 구성이잘못되고수법이미숙한조각품들이난무하는속에서도미국시민들은미켈란젤로와같은진짜예술을숭배한다. 그러나그것은단지성공한예술에만해서다. 기존의정해진개념에영합하지않으며자기의독창성을발휘하고이를삶속에실현하려고애쓰는진실된천재예술가들은비참한생애를보낸다. 이천재의작품이어느날대중의일시적유행에맞는날이올지도모르지만그땐이미이천재의심장이멈었을때일것이다. 이상도안목도없는대중이거장의유산을죽게한다.

오늘날예술가는프로메테우스같은삶으로는경제적궁핍에서헤어나가지못하기때문에결국창조적인예술을하지못한다고말한다. 어느시대를막론하고예술

가들은경제적인곤란을겪었다. 미켈란젤로는오늘날의조각가나화가처럼자기 후원자에게의존해야했다. 그러나예술적안목은대중의무분별한식견과는확실히다르다. 그렇기때문에오히려이들은거장의반열에올라자랑스럽게존경받고 있다.

오늘날예술을지키는자는오직한가지기준, 하나의가치, 곧돈만을생각한다. 얼마나위대한작품이나같은질적인문제에는관심이없고얼마나많은달러를버는 지에만관심이었다. 그래서미르보 (Octave Henri Marie Mirbeau) 의성격극 『사업은사업 Les Affaires Sont Les Affaires』 에나오는금융업자는색깔만요란한미술작품을보고이렇게말한다.

“얼마나위대한작품인지보시오. 5 만프랑짜리입니다.”

꼭우리주변의천박한벼락부자들같다. 이런영터리인물들은위대한작품을발견했다고떠들면서자기수준의천박함을돈으로메우려한다.

사회에서저질러지는가장용서할수없는범죄는사상의자유와관련된것이다. 민주주의를내세우는나라에서너무나확실히다수의횡포가자행된다.

미국의개혁운동가웬델필립스 (Wendell Philips) 는 50 년전이렇게말했다.

“절대적인민주적평등이보장된우리나라에서는여론이전지전능한것이다. 여론이라는독재적권력은미치지않는곳이없어숨을곳도없다. 여론이나투표의 결과가자신의사회생활이나사업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는국민은 단한명도없을것이다. 그리하여국가는자기의신념을두려움없이행사하는개인들의합이아니고겁쟁이들이모여있는집단이된다. 다른어떤나라사람들보다미국인들은서로를두려워한다.”

우리의현실은웬델필립스가직면했던상황에서조금도더나아지지못했다.

오늘날도그때와마찬가지로여론은전능한독재자이다. 겁쟁이들의집합인다는자기영혼과마음이얼마나가난한가를반영해주는여론을그대로수용한다. 이런상황에서루즈벨트 (Theodore Roosevelt) 대통령같은인간이전례없이 부상할수있었다. 루즈벨트는어리석은대중의심리를잘이용한가장사악한인간이다. 정치가로서그는다수의인간은이상이나고결함에는거의관심이없다는사실을잘알았다. 대중들은그저겉모습이그렇듯하면그만이었다. 대중들은비가오는지눈이오는지관심도없고, 흑인들이치한들에게돌려싸여런치를당하거나말거나신경도쓰지않았다. 그저대중적흥밋거리에희희덕거렸다. 정신상태가더욱가증스럽게뒤를릴수록대중들은더욱기뻐하고환호했다. 이렇게이상은없고영혼은천박한상황에서루즈벨트는당대의인물로행세했다.

한편정치적위상을높이려고하는자들과세련되고문화적이며나름의능력을 갖춘자들은자기몸을사려어린애처럼침묵을지키고있다. 우리시대가개인주의 시대라는주장은어불성설이다. 우리시대는모든역사의아픔을반복하고있을뿐이다. 진보와계몽과과학과그리고종교적·정치적·경제적자유를위한모든노력

이대중이아닌소수로부터나온다. 항상그렇듯오늘날도소수가진정제대로이해받지못하고쫓기고투옥되고고문을당하고살해된다.

나자렛의선동가가주창한형제애의원칙에는생명과진리와정의의싸이보존되어있다. 그러나이빛은소수의빛일뿐이다. 그런데의원칙을다수가장악하는 순간형제애의원칙은고통과재앙을퍼뜨리는피와불을부르는원칙과예언이된다. 로마의전제정치에대한공격은한밤중어둠속에서솟아오르는태양과같았다. 후스 (Johannes Huss) 나칼뱅 (John Calvin), 루터 (Martin Luther) 같은위대한인물들의등장이었다. 그러나로마가톨릭이라는괴물에대항한그들에게대중은그적목지않게잔혹하게공격했다. 이이단자, 곧소수는이런행태에굴복하지 않으려했고, 그로인해화를당했다. 무한한정열과희생과인내를시험한후인간의 정신은마침내종교적환상에서자유로워졌다. 소수의인간은계속새로운정복을향해나아가고다수는뒤에처진다. 세월이흐르면서진리는허위의확산과함께왜곡된다.

정치적으로볼때그간존볼 (John Ball), 와트타일러 (Wat Tyler), 윌리엄 텔 (William Tell) 과같은위인들을본받은수많은개인들이왕과독재자들의권력에대항해싸웠지만인류는여전히절대적노예상태이다. 개인주의적선구자들이볼때이세계의뿌리까지뒤흔든엄청난사건은프랑스대혁명이다. 흔히그렇듯엄청난사건은사소한사건에서촉발된다. 한선동가가미유데몰랭 (Camille Desmoulins) 의웅변과열정은여리고성의나팔소리와같았다. 그후고문과학대와공포의기구와상징인바스티유감옥이불태워졌다.

모든시대에서항상위대한이념, 해방의기치를든자는소수였다. 대중이기치를들지않았다. 대중은이무거운깃발을옮기지못한다. 이런진리는다른어떤곳보다도러시아에서확연히입증되었다. 이미수많은사람들이피에주린정권에의해 목숨을잃었지만왕좌에앉은괴물은조금도동요하지않았다. 강철같은머리를뒤집어쓰고문화적으로이념적으로문학적으로, 가장내밀한감성까지도억압당하고있는상황에서어떻게독재자를몰아내는일이가능하겠는가? 기동성이떨어지고게을러터진다수인대중, 곧러시아농노는한세기에걸친투쟁과희생과말할수없는비참함을겪고도여전히“하얀손을가진사람”(지식인을뜻한다.-역자주) 이 밧줄을가져와우물에빠진자신들을건져줄것이라고믿었다.

미국에서의자유를위한투쟁에서도다수는장애물이었다. 지금까지도미국건국의아버지들인제퍼슨 (Thomas Jefferson) 과패트릭헨리 (Patrick Henry) 와토마스페인 (Thomas Paine) 의이념을그후예들은부인하고있는형편이다. 대중들은그들중누구도원하지않았다. 링컨이승상했던위대함과용기는당대의대서사시의배경인다수에게잊혀졌다. 흑인들의참된성자들의모습은보스턴의소수의투사들에게남아있다. 그들은로이드개리슨 (Lloyd Garrison), 웬델필립스, 마가렛풀러 (Margaret Fuller), 시어도어파커 (Theodore Parker) 이다. 이들의위대한용기와강인함은존브라운에서그절정에달했다. 지칠줄모르는 열정과웅변과인내로남부지주들의요새를무너뜨린것은이들이었고링컨과그후